

#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 민간 독서교육 활동의 수용과 관련하여 -

## Strategies for Developing Children's Reading Education in Public Libraries

- In Relation to Activities of Children's Reading Education in Private Sector -

김종성(Jong-Sung Kim)\* · 강영아(Young-A Ka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공공도서관 밖의 어린이 독서교육 사례         |
| II.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                      | 1. 민간 어린이도서관                     |
| III.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현단계 :<br>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2.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
| 1. 장서                                    | V. 결론: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발전전략      |
| 2. 운영                                    | 1. 어린이 독서교육의 범위 확대               |
| 3. 인적 자원                                 | 2. 전문성의 확보                       |
| 4. 물리적 환경                                | 3. 프로그램의 다양화                     |
|  | 4. 어린이 독서교육을 위한 사회적 역할<br>개발과 확대 |

###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현단계를 검토하고 그 발전전략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공공도서관 어린이 열람실과 민간 영역의 어린이 독서교육 기관과 단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심층 면접하여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확대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trategies for children's reading education in public libraries. By comparing the activitie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solutions to current problems were sought.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터 자료실

## I. 서 론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에게 '독서를 통해' 지식과 정보의 평등한 접근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공공도서관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어른에 비해 행동반경이 제한된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은 더욱 먼 존재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과 도서관 밖의 사설 도서관이나 단체의 활동과 비교해 보면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린이 독서교육에서 도서관의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글에서는 현재의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 뿐만 아니라 민간의 어린이 독서교육 활동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1998년 도서관 통계<sup>1)</sup>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어린이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239개관으로 파악된다. 이들 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에 배치되는 인력과 운영 방식이 유사하고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조직 구조,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특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sup>2)</sup> 따라서 여기서는 부산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 분석 내용이 공공도서관의 전체 구도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밖의 어린이 독서교육기관과 단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설립배경과 운영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민간 어린이도서관으로서 개인이 설립한 어린이도서관과 기업이 운영주체인 인표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연구회이다.

1) 『한국도서관통계』, 한국도서관협회, 1998.

2) 유사한 운영방식의 예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겨울과 여름 방학의 「독서교실」을 들 수 있다. 「독서교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한 일정과 내용, 진행방식을 기초로 개별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된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고된다. 이 외에도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인사 발령 등으로 주기적으로 이동하므로 각 도서관의 특성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기존의 업무 내용에서 그리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이 개별 도서관 또는 지역에 따른 특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 II.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

모든 인간에게 독서는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요구 혹은 개인의 지적이고 정서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사회의 지적인 유산과 문화, 전통, 규범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습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의 독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독서는 미래에 그들이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활동의 주체가 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으며 어린 시절에 습득한 지식과 경험은 개인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토대가 되어 일생을 살아갈 방향을 지시해 주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그러므로 이 역할이 얼마나 충실히 달성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와 개인의 미래 모습은 달라지게 된다. 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린이의 독서는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는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험세계와 지식세계를 확장시키고 이성과 감성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도서관 이용경험과 독서경험은 어린이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며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존립 근거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독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독서를 통한 인격 형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입시에 성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의 관심이 높다. 이것은 독서에 대한 관심과 필요는 느끼나 독서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방법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도서관이 어린이 독서교육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나타난다. 대학 입시제도에 눈살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어린이 독서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속에서 독서자료의 마련과 제공을 통한 건전한 사회문화의 조성을 주요 존립 근거로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독서를 입시교육의 도구로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인성교육, 전인교육으로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왜곡된 독서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능동적인 이용자 봉사를 의미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은 사회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의 수행을 의미한다.

한편 올바른 독서교육이 독서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때 어린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차이는 독서교육의 시작과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사회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양과 질이 달라지듯이 독서에 있어서도 이 '보편적인' 이치는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독서

환경과 그에 따른 독서교육에 있어서 개인 차이는 교육의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지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정보와 지식과 문화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공공도서관의 존립 근거에서 찾고자 한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의 어린이 독서교육에서 우려되는 독서환경과 기회, 경험의 불평등에 따른 삶의 질적 격차와 왜곡된 독서교육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공공도서관이 어린이 독서교육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Ⅲ.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현단계: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1. 장서

##### 1) 양적 측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 장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게는 4천 여 권에서 많게는 3만 여권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개실 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어린이 봉사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열람실의 자료 구입은 도서관 전체의 자료구입예산 속에 별도의 항목이나 비율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구입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 독서자료의 수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어린이 열람실의 자료수집을 위한 예산이 전체 예산 속에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기본이 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제시된 장서기준에는 어린이열람실의 자료에 대한 언급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3)</sup> 물론 각 자료실별로 장서기준을 해당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정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어린이열람실의 경우에는 그 이용대상과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는 일이다. 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장서는 도서관이 본연의 기능

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살펴보면 봉사대상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시설과 장서 규모, 연간 증가 장서수를 정해 놓고 있다.

에 충실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된다. 이런 면에서 어린이 장서의 양적인 확충에 대한 도서관측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1>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 개실연도와 장서현황<sup>4)</sup>

도서관	개관연도	어린이열람실 개실연도	장서(권)
시 민	1901. 10	1982. 8	29,846
구 덕	1978. 3	1996. 8	7,931
반 송	1978. 10	1996. 5	6,863
해운대	1982. 6	1991. 12	9,736
부 진	1982. 8	1982. 8	17,157
서 동	1983. 5	1996. 8	6,111
구 포	1983. 7	1992. 4	6,114
사 하	1984. 9	1989. 4	8,563
연 산	1987. 3	1996. 3	5,812
중 앙	1990. 4	1990. 4	15,431
명 장	1994. 3	1994. 3	11,035
금 정	1996. 12	1996. 12	8,892
영 도	1996. 7	1996. 7	7,516
남 구	1997. 7	1997. 7	7,120
동 구	1998. 4	1998. 4	4,059

## 2) 질적 측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내용 즉, 장서의 질은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내용과 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질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료의 선정과정이다. 이러한 자료선정 과정을 다음에 제시된 어린이 열람실에 근무하는 사서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

수서는 담당 사서가 서점에 가서 신간목록을 적어오거든요. 만약에 100권을 살 것 같으면 150권이나 200권 정도 적어와서 목록을 각 실에 배부해요. 그럼 그 목록을 보고 도서관 전체 자료선정위원회를 하면 그때 들어가서 어떤 책은 우리 도서관에 있으니까 또는 종류가 비슷하니까 뺏으면 좋겠다던가 또는 각 실의 담당자가 원하는 책이나 열람자가 원하는 책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해 줘요. 사서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지는 않아요. 아니면 현장수서 나가기 전에 미리 어떤 책이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 두면 구입을 해 줘요.<sup>5)</sup>

4) 각 도서관의 장서현황은 전화로 일일이 문의하여 파악하였음.  
5) J사서와의 면담 (2000. 3. 25).

##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1권 제 3호)

애들이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책들은 거의 흥미위주예요. 오락성 있는 것들... 저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책들 몇 개 적어놔요. 그래서 일단 선정은 목록 같은 것을 보고 결정해요. 앞서 근무했던 사서는 어린이권장도서 목록을 보고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어린이책 전문서점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많이 참고해요.<sup>6)</sup>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모습의 자료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서 담당 사서나 도서관의 전체 운영 방식에 따라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자료 선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담당 사서의 의견이 자료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용자들의 요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기보다는 사서의 인식 정도에 따라 선별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자료에 대해 어린이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내가 전에 있었던 도서관에는 장서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빌리려고 들고 오는 책이 하나같이 만화일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애들 흥미만을 끌기 위한 책들이나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책들이예요. 내가 보니까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애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더라고요.<sup>7)</sup>

이 이야기를 통해 잘못 선정되어 열람실로 들어온 책들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좋은 책을 선택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판단의 근거들을 가지는데 반해,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하므로 한순간의 잘못된 자료수집은 꾸준히 이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과 자료 선정에 대해 파랑새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전영순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중랑구립도서관에서 도서선정위원을 맡고 있어요. 근데 공공도서관은 장서 규모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아무책이나 그냥 갖다두기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책은 갖다 놓고 나쁜 책은 좀 빼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시더라고요.<sup>8)</sup>

이 부분에서 도서관이 어린이 독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실제로 사설로 운영되는 어린이 도서관의 자료선정 과정<sup>9)</sup>과 비교해 볼 때 자료 수집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인식이 부족한 모습이다.

6) C사서와의 면담 (2000. 3. 27).

7) C사서와의 면담 (2000. 3. 27).

8) 서울에서 '파랑새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전영순과의 면담 (2000. 3. 17).

9) 사설 어린이도서관이나 문고에서는 그곳의 운영자 또는 실무자가 직접 책을 읽거나 소모임에서 토론을 거친 후 선정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단체, 모임등에서 의식을 가지고 평가한 책을 선정하고 있다.

사서의 자료선정과 관리가 어린이열람실의 장서의 질과 직결되며 이 행위의 결과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볼 때 그 어떤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보다 중요한 일이 된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과는 달리 독서경험이 적고, 자신의 손으로 양질의 자료를 선택할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 선정을 통한 독서환경의 구비 즉, 양질의 장서 확보는 어린이 독서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할만큼 기본적으로 중요 요소인 것이다.

## 2. 운영

어린이열람실의 운영은 크게 일상적인 열람업무와 이용자들의 숙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참고봉사 업무, 독서지도 관련 각종 행사의 기획과 진행이 포함된다. 이러한 어린이열람실의 독서교육 활동을 대출이나 반납, 참고 업무, 자료 선정, 학습 지원 등의 일상적인 독서지원 활동과 그 속에서 틈틈이 이루어지는 각종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특히 학습지원은 자료 선정과 함께 어린이열람실의 특성을 나타내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 1) 학습지원 활동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를 위한 독서교육의 한 형태로 사서는 일상적인 업무 공간 안에서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이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까지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우선 도서관 내의 다른 업무를 하다가 어린이열람실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사서는 성인 이용자들을 대하는 것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사서의 말을 통해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니까 업무상의 차별화가 느껴지지요. 어른들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마음도 들고 정말로 아이들 시각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sup>10)</sup>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애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업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공공도서관의 성인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주제나 자료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주제전문가가 되기 어려운데 어린이실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조금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sup>11)</sup>

10) J사서와의 면담 (2000. 3. 25).

11) C사서와의 면담 (2000. 3. 27).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린이열람실의 업무를 시작하는 사서들은 도서관의 다른 업무에 비해 매력이나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린이 열람실은 하나의 개별도서관으로 간주될 정도로 어린이를 위한 자료와 그들에게 맞는 봉사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성인 열람실과는 차별화된 업무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은 어린이 이용자와 활발한 의견교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어린이열람실의 업무가 성인 자료실과 다른 점은 어린이들의 숙제를 도와줘야 하는 일이다. 이것은 성인들이 자신의 정보요구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의 자료를 찾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사서는 성인 이용자를 대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들의 숙제를 도와줘야 하는 학습보조자의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담당 사서의 이야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거의 숙제 봐주는 업무가 많아요. 애들이 하는 숙제와 관련된 참고질문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거든요. 숙제를 그대로 둘이다 밀면서 이거 찾아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필요한 자료를 찾아줘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애들이 숙제하러 많이 와요.<sup>12)</sup>

여기서 애들이 앉아서 책을 보기도 하지만 읽을 책은 빌려서 가고 숙제 때문에 많이 머물러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 주면서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서 하라고 한대요. 다른 애들하고 같은 자료를 보고 하면 안된다는 애들도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해요. 사실 숙제하러 오는 애들이 많아서 백과사전 이런 종류의 자료는 전집으로 사면 일년을 못 가요. 훼손돼서 새로 수리하고 해도 금방 너덜너덜 해 지거든요.<sup>13)</sup>

어린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사서는 어린이열람실에 있는 자료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주거나 관내의 다른 자료실에서 자료를 구해주기도 한다. 필요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피씨통신을 이용해서 숙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열람실의 역할은 단순히 교양이나 여가 활용을 위한 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린이와 책의 관계가 좋은 책을 읽고 느끼면서 정서적인 감동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요구를 해결하고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한다.

12) C사서와의 면담(2000. 3. 27).

13) Y사서와의 면담(2000. 4. 7).



## 2) 독서교육 프로그램

### (1) 현황

#### ① 1일 독서교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1일 독서교실」<sup>14)</sup>은 해당 도서관이 위치한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학기중의 평일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다. 「1일 독서교실」은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폭넓은 독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독서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sup>15)</sup>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도서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도서관에 대한 소개와 이용법이 주를 이룬다.

「1일 독서교실」을 진행하는 담당 사서는 프로그램의 진행 일정, 내용을 마련한다. 그리고 관내의 초등학교의 협조로 학생과 담임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서관과 도서관 이용, 견학, 자료검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책을 읽어보는 기회를 갖는다. 그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1일 독서교실」에 참여한 학급의 인솔교사에게 들어보자.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면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알겠는데 이게 도서관에 대한 안내나 이런 기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정도인 것 같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보충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이용해 봐야지요. 앞으로 도서관에서 독서감상문이나 글짓기 이런 내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sup>16)</sup>

이 교사의 이야기처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1일 독서교실」은 도서관에 대한 안내나 홍보의 성격이 강하며 여기서 얻어진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은 중요하며 이것이 도서관 이용교육 차원에서 상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을 그 다음 단계의 도서관 이용과 연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용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이용을 연결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이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② 독서교실

「독서교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에 6일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독서, 글짓기 등의 독서와 그에 따른 독후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독서교실」은 1971

14) 권재운, 「전국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주요 사례」, 《도서관》 제55권 3호 (1990. 5/6), 68쪽.

15) 「1999년도 상반기 1일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A 공공도서관 내부 문서.

16) A 공공도서관의 「1일 독서교실」 인솔교사와의 면담 (1999. 6. 8).

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처음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시행하는 도서관이 늘어나 1999년 8월에 실시된 여름 독서교실의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94개의 공공도서관이 참가하여 총 17,813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고 이중 14,419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sup>17)</sup>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있으며 한 번에 40명 정도에서 많게는 60명 이상까지 참여하고 있다. 각 도서관의 「독서교실」 운영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지침에 따르면서 도서관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그러면 개별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실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도서관의 담당 사서는 세부 일정과 내용을 마련하여 관내의 초등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의 신문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이후 어린이들이나 어머니들이 도서관에 직접 와서 참여신청을 하게 된다.

사서는 어린이들이 「독서교실」에서 읽게될 선정도서와 각종 독후 활동 및 기타 활동을 정해 전체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교재를 만드는데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도서관도 있으나 부산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의 어린이열람실 사서 모임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교재를 그대로 쓰거나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도서관 이용과 좋은 책 선택법, 원고지 작성법 등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많은 편이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독서교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한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시간표를 통해 알아보자.

---

17) 유소영·정은주,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도서관》 제55권 1호(2000. 봄), 57쪽.

<표 2> N 공공도서관의 2000년도 겨울독서교실 시간표

시 간	1.5 (수)	1.6(목)	1.7 (금)	1.8 (토)	1.10 (월)	1.11 (화)	1.12 (수)
09:20~ 09:30	출 석 점 검						
09:30~ 10:10 (1교시)	개교식	감상문 작성법	원고지 작성법	책읽기	도서 선택법	책읽기	그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 인사
10:20~ 11:00 (2교시)	독서교실 안내 및 도서관 견학	책읽기	책읽기	독후감상 화 그리기	그림책 만들기	독후연극	수료식
11:10~ 12:00 (3교시)	자기소개	옛이야기 듣고 글쓰기	책읽기				
12:00~ 12:50	점 심 시 간						
12:50~ 1:30 (4교시)	도서관 이용법	나의 독서 이력서 만들기	독서신문 만들기		자유로운 글쓰기	독서교실 을 마치며...	
1:40~ 2:20 (5교시)	책읽기				책읽기		
2:30~ 3:00 (6교시)	독 서 기 록 장 정 리						

이 시간표에 나타난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도서관 이용, 책읽기, 글쓰기를 비롯한 독후 활동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각 도서관의 담당 사서는 위의 내용 외에도 융통성있게 프로그램의 내용을 채우고 있으며 독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제공되고 있다. 참고로 N 공공도서관 외에 다른 도서관의 프로그램 내용을 대강 열거해 보자면 우리 문화재 알아보기, 독후감상시 만들기, 나만의 가면 만들기, 독서퀴즈, 독서달력 만들기, 나에게 맞는 책 고르기, 친구에게 권하는 책 고르기, 영화보고 이야기하기, 마술, 컴퓨터 활용 등이다.

독서와 관련되는 글쓰기나 독후활동이 내용의 주축을 이루지만 참여대상이 어린이라는 면을 고려해서 독서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주려고 노력한 모습도 보인다. 전체적인 진행 방식도 “수업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조별로 아이들이 직접 해 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 참여자들에게도 호응이 좋고 교육효과가 높다”<sup>18)</sup>고 말하고 있다.

「독서교실」은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의 고유 사업의 하나로 독서에 대한 이용자의 흥미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내려는 시도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크다. 이것은 오랫동안 시행되면서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거쳐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연륜을 쌓

18) U사서와의 면담 (2000. 1. 15).

있고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졌음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런 연륜이 새로운 형식을 마련하고 내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되지 못하고 과거의 틀에 조금씩 내용들을 교체 또는 첨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독서교실」이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대표적인 어린이 독서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특히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한 변신과 시도가 더욱 책임성 있게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③ 독서회

독서회는 보통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월 1회의 모임을 통해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부산 지역의 공공도서관에는 6개의 어린이독서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주로 독서토론이 중심이고 이외에도 현장답사를 간다든지 다양한 독후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이 많은데 반해 주부 독서회 또는 어머니 독서회는 도서관마다 거의 필수적으로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도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주로 시행하는 책 중심의 프로그램 이외에도 ‘단골 이용자’들을 위한, 그들의 흥미를 건전한 방향으로 끌어주기 위한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도서관이 담당해야 한다. 이것은 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에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건전한 문화활동까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야 하며 여기서 도서관의 ‘주기만 하는’ 문화적인 역할보다는 ‘함께 만들어 가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모듬 활동의 지원과 장려하는 독서회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분야로 꾸준히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다.

### ④ 기타 프로그램

앞에서 살펴본 공공도서관의 대표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 외에 각 도서관에 따라 달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유아독서교실」<sup>19)</sup>은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이 오랫동안 초등학교 고학년을 참여대상으로 해 온 것에 비해 독서교육의 대상을 유아에게로 확대한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의 할머니 자원봉사자에 의한 ‘옛 이야기 들려주기’<sup>20)</sup>가 있다. 위에서 열거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각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독서 강좌나 글짓기 강좌, 독서퀴즈대회, 글짓기 대회 등의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19) 이 프로그램은 H 공공도서관에서 200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 이 프로그램은 H 공공도서관에서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2) 한계

## ① 운영방식

각 프로그램들의 운영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하나의 행사 또는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렇게 각 독서교육 프로그램들이 행사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와 일상적인 도서관 이용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런 행사들을 통해 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이 많은 이용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면도 있다. 하지만 일회적인 행사를 통해 얻어지는 전시 효과에 치중하여 꾸준하게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섬세한 봉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아래의 말은 이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건 외국 도서관 이야기지만 거기서는 무슨 방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말고 사서하고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늘 관계를 가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편지를 썼는데 사서선생님이 그걸 읽어주셨다. 아니면 사서선생님이 주관해서 작가를 만났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도서관에만 가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 수 있다라든가, 사서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친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sup>21)</sup>

이 증언의 주인공은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도서관을 원하고 있다. 이것은 일회로 그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책읽기와 관련한 조그만 흥미거리나 문화적인 사건들이 항상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뭔가 마련된 틀에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제공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어린이 독서교육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행사가 아닌 생활로 다가오는 독서교육은 참가자들의 일상적인 생활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속에서 도서관은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공간이 되는 것이다.

## ② 참여대상

현재 어린이열람실의 주요 기능은 어린이 이용자에 대한 봉사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을 구비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봉사를 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어린이 열람실의 주요 이용객 중에는 오전에 찾아오는 유아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자료도 구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

21) 수원지역의 '동화읽는 어른(해님달님)' 대표 심은정과의 면담 (2000. 3. 18).

로그래밍이나 이용자 봉사보다는 초등학생에게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어 어린이 열람실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은 그 대상을 어린이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실제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적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어머니에 대한 자녀 독서지도 강좌가 교양강좌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어린이 독서교육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의 어린이 독서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의식이 어린이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 독서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다.

### 3. 인적 자원

#### 1) 어린이 전문사서의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은 담당 사서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와 책에 대한 사서의 지식이나 의식이 어린이 독서교육의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라는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수집, 열람과 이용교육, 학습보조, 각종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일들이 담당 사서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그럼 어린이 전문사서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국 어느 도서관이나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린이책 전문사서를 두는 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행정적인 구조상 전문사서가 클 여지가 거의 없다. 국가가 전문사서를 키우겠다는 의지와 계획없이 그저 행정적 필요에 따라 사서들을 배치하는 탓이다. 하지만 독서습관이 길러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독서지도를 해줄 어린이책 전문사서는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sup>22)</sup>

이 말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 전문사서'가 없다. 만일 있다면 현장에서 업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잘'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개인의 의지와 열성에 따른 것도 문제지만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공무원 신분인 관계로 주기적으로 또는 급작스럽게 도서관 내외부에서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이다. 현장 사서의 말을 통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22) 「책읽기가 괴로워요」, 《한겨레 21》 제305호(2000. 4. 27).

2, 3년에 한번쯤 인사이동이 있어요. 대부분 외부로 사람이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때 어린이실 담당을 희망하면 들어주기도 하는데 다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전체 도서관 인사구도 안에서 사람들을 배치하거든요.<sup>23)</sup>

일단 그 일을 맡은 후에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도 발령이 나면 이동을 해서 어린이 봉사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업무를 맡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어린이 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전문성조차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재교육의 필요성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사서 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서재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문제<sup>24)</sup>와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실무적인 방법에 치중해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상황을 알아보자.

작은 도서관에 있으면 재교육 기회가 좀 오기도 하는데 큰 도서관에 있으면 더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기본적으로 처음 들어가서 받는데 말고는 한번도 못 받았어요. 교육 점수가 있어서 조금 급수 높은 사서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밑에까지 돌아올 여유가 없어요. 실제로 독서교육 뭐 프로그램, 문화행사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밑에서 많이 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해요.<sup>25)</sup>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마저도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에서 독서교육 관련해서 사서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공통전문교육으로 '독서지도과정'이 2주 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택전문교육으로 '어린이 독서지도 전문과정'이 2000년도에 신설되어 1년에 1회, 1주일(5일) 기간으로 50명을 교육대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이 1주일 동안 어떤 목표 하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를 2000년도 교육훈련계획<sup>26)</sup>을 참고하여 살펴보자.

### 교육목표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기능으로서의 어린이독서지도 기능 강화

23) J사서와의 면담 (2000. 3. 25).

24) 재교육의 기회가 적다는 사실은 연구자들이 현장 조사를 할 당시에 만난 어린이열람실 담당 사서 15명 중에서 2명만이 독서지도 관련 재교육을 받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다.

25) C사서와의 면담 (2000. 3. 27).

26) 국립중앙도서관, 『2000년도 교육훈련계획』, 1999, 11쪽.

-효과적인 어린이 독서지도 방법 습득

교수요목

- 효율적인 어린이 독서지도 방법
- 어린이 심리 및 대화요령
- 독서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방법
- 좋은 책 선정 요령
- 독서감상문 작성 지도 방법

‘교수목표’와 ‘교수요목’을 보면 실제적인 방면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린이 독서교육이 갖는 넓은 범위와 깊이에 다가가기에는 미흡함이 보이며 어찌 보면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이기도 한다.

현재 드물게 찾아오는 재교육의 기회와 실무방법 중심의 내용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정책이나 문화정책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 속에서 어린이 독서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어린이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어린이 독서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와 관련된 다른 전문 영역들처럼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겉모양만 어린이 전문사서가 아닌 ‘어린이 전문사서가 있는 생활 속의 도서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어린이열람실 담당사서 연대

위에서 어린이열람실 담당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았다.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의 운영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성을 효과적으로 살리면서 그에 맞는 ‘맞춤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는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 조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서 내부로부터의 자각과 움직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린이열람실을 담당하는 사서들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연수도 하는 자체적인 모임이 있어요. 특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있는 독서교실이 기간도 길고 내용도 많이 필요한데 개별적인 도서관에서 사서 혼자만 떠 안고 프로그램 진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모여서 필요한 연수도 갖고 의견교환을 하자고 해서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지금은 독서교실 하는 시기에 몇 번 모여서 정보교환도 하고, 자체 연수를 하기도 해요.<sup>27)</sup>

27) C사서와의 면담 (2000. 3. 27).



이 말을 통해 부산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부 관할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을 담당하는 사서들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얻기 위해 자발적인 모임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모임을 하는 큰 축은 방학중의 「독서교실」 준비와 자료집 발간 때문이지만 이들은 이 모임을 통해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도 한다. 비록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치중해 있지만 이들의 움직임에서 전문성 확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추천도서목록이라는 성과물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어린이열람실 사서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직은 이런 활동이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상시적인 모임은 아니나 현장에서 필요를 느껴 이런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고무적이지만 이 모임의 성격이 실무중심의 모임이 되고 있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 4. 물리적 환경

### 1) 접근성

도서관의 접근성은 도서관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냐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접근성이 대비되는 두 도서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도서관이 접근하기만 좋으면 오전에 애들이랑 오는 엄마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애들 학교가기 전에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면 애 데리고 와서 같이 책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높은데를 헉헉거리면서 애들 데리고 오는 이용자들이 대단해 보여요.<sup>28)</sup>

여기는 교통이 좋아서 멀리서도 많이 와요. 엄마하고 오기도 하는데 애들끼리도 잘 와요. 저도 엄마들한테 친구랑 같이 보내면 저희끼리 잘 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끼리도 많이 오구요.<sup>29)</sup>

여기서 도서관에 대한 접근의 용이함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다. 그럼 이런 위치에 따른 이용도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생각해 보자.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등의 접근방법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스스

28) C사서와의 면담 (2000. 3. 27).

29) J사서와의 면담 (2000. 3. 25).

로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성인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린이가 도서관을 찾아가는 길은 성인에 비해 더욱 힘들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는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파트 단지 안에 영통도서관<sup>30)</sup>이라는 도서관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는 책이 없어요. 생긴지 얼마 안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애들이 워낙 많이 빌려가서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도 볼 책이 없다는 말들을 해요.<sup>31)</sup>

비록 부산 지역의 일은 아니지만 이 도서관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도서관이 그려진다. 이것 또한 도서관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실제 이용자들의 잠재된 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용이 많은 도서관은 이용통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서관의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기본 토양이 되며 지속적인 자극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부산 지역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비교적 접근이 편리한 너댓 개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로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어른에 비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된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만들어진 도서관을 이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독립된 어린이 도서관<sup>32)</sup>을 짓는다는 것 소규모로 문고를 마련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위의 문제들을 감안하여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 2) 내부 환경

도서관의 내부 환경은 시설의 규모와 서가의 배치, 환기시설, 이용자가 느끼는 분위기 등을 포함한다. 이것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운영주체의 의식과 어린이 봉사에 대한 도서관측의 관심이 반영된다. 먼저 부산시내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의 시설 규모를 살펴보면 규모가 큰 곳은 75평에 이르지만 작은 곳은 10평이 되지 않는 도서관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반수에 가까운 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이 30평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 동적이며 이들이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면에서 좁다는 생각이 든다.

30)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1999년 7월 개관하였다.

31) 수원에서 어린이 책 사랑방 '해님달님'을 운영하는 최정숙과의 면담 (2000. 3. 18).

32)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으로서 어린이도서관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어린이도서관의 양적 확충도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좁은 공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어른처럼 또는 학교에서와 같이 책상과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책을 보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이 일률적으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해 두고 있으며 부산 지역에서 한 도서관만이 어린이열람실 한쪽에 방을 마련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람실에서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들어보자.

막상 도착해 보니 이미 도서관 안의 어린이도서관실은 아이들로 붐볐다. 어린이도서관실의 좌석 수는 36석. 남은 자리는 하나도 없었다. ...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서서 들던 선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가 아프다고 보채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찬 시멘트바닥에 세 모녀는 털썩 주저앉았다. ... 결국 동화책 한권을 다 읽어주기 못하고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나와야 했다. "어려서부터 도서관의 분위기를 익혀주려고" 아이들을 데려온 엄마의 노력을 이렇게 수포로 돌아갔다.<sup>33)</sup>

이러한 불편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그 공간에 들어서서 느끼는 분위기도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것은 어린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열람실의 경우 더욱 민감한 문제이다. 현재 부산 지역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긴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실내환경이나 분위기 면에서 다른 성인 열람실과 별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물론 낮은 서가와 어린이책, 조금 작은 의자, 한두 점의 그림이나 포스터 등의 구성물들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딱딱한 사각형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 사각형들에 더해지는 시멘트벽의 흰색 또는 회색 페인트, 갈색 계열의 약간 낡은 가구들, ... 이런 실내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즐거워하거나 재미있어하기 보다는 경직되기 쉽다. 이것은 도서관이 학교와는 달리 아무런 통제 없는 가운데서 자유롭게 서가 사이를 누비고, 책을 읽는 활동을 권장한다는 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 IV. 공공도서관 밖의 어린이 독서교육 사례

### 1. 민간 어린이도서관

민간 어린이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33) 「책읽기가 괴로워요」, 《한겨레 21》, 제305호(2000. 4. 27).

공간, 독서공간을 제공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이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민간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단체에서 필요를 느껴 설립을 주도한 경우와 기업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사설 어린이도서관<sup>34)</sup>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어린이도서관과 문고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 경기, 제주에 걸쳐 15곳으로 파악<sup>35)</sup>되고 있다. 이중 몇몇 도서관과 문고는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sup>36)</sup>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설립 목적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파랑새어린이도서관<sup>37)</sup>

파랑새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사무총장을 지낸 전영순은 어린이들이 평등한 독서기회를 생활 공간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도서관을 1997년 10월에 개관하였다. 어린이 독서운동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인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현장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실천 정신을 가진 이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학부모, 넓게는 우리 사회에서 각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독서문화와 어린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향과 이념을 알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도서관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유아용책, 동화책, 중고생책, 학부모책을 통틀어 2000여권을 헤아린다. 비록 장서의 규모는 작으나 수집된 책들이 운영자에 의해 엄선되었다는 면에서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책의 선정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여기 들어오는 어린이 책 신간은 거의 읽어요. 제가 못 읽었다면 다른 단체에서 읽은 후 평가를 거친 책을 구입해서 뒤요. 애들에게 제가 읽어서 좋은 책을 권하거든요. 사실 보통 책들까지 하면 버릴 책도 많고, 여기 두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집에 쌓아둔 책도 많아

34)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도 있고 문고라든지 다른 명칭을 가진 곳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민간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과 문고를 통칭하여 사설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35) 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ibooknet.or.kr/lib.htm>], 2000. 3. 12.

36) 전국 단위로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회장 전영순)가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가입과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사설 어린이도서관도 있다.

37)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3번지 성원 아파트 상가 2층 202호에 위치하고 있다.

요.38)

위의 말처럼 운영자에 의해 내용이 파악된 장서 2000여권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며 이를 통해 이 도서관이 올바른 어린이 독서교육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엄격한 자료선정 과정을 밝게 해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들어보자.

책을 잘 읽는 아이들은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별해서 선택하지만 대부분의 보통 아이들이 처음부터 책을 잘 읽고 좋은 책을 능숙하게 선택하지는 못 하거든요. 이런 분별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몇 년 동안 책을 꾸준히 읽어야 생기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어른이 직접 읽어보고 좋은 책을 애들한테 권해야 되요.39)

어린이 독서교육에 대한 이해와 운영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장서가 수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집된 자료의 분류는 직접 운영자가 책을 읽고 그것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외국동화, 창작동화, 옛이야기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령구분도 해 주어 어린이들이 스스로 쉽게 읽고싶은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서수집과 정리가 어린이 독서교육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 도서관의 활동에 기대를 가지게 하는 반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의 장서가 너무 쉽게 수집되고 형식적으로 처리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렇게 수집된 장서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봉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과랑새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는 크게 어린이를 위한 것과 학부모를 위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행사 형태의 슬라이드·비디오 상영, 놀이 마당, 현장학습, 원화·도서전시회가 있으며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는 유아 그림책반, 독서교실, 방학특강 독서문화교실이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상시적인 자녀독서 상담을 하고 있으며 특정 주제를 정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들을 바람직한 독서교육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도서관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이 학부모 모임 운영이다. 이것은 유아나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가 직접 어린이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읽힐 좋은 책을 선별할 능력을 기르고 어린이 독서운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바른 어린이 독서교육이 좋은 독서환경과 불과분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의 주

38) 서울에서 과랑새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전영순과의 면담 (2000. 3. 17).

39) 서울에서 과랑새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전영순과의 면담 (2000. 3. 17).

체세력은 어른이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자녀의 교육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그 중심에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파랑새어린이도서관의 활동은 어린이 독서교육을 좀 더 능동적인 성인들의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파랑새어린이도서관의 설립 정신을 사회로 확산시켜 내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2) 선배어린이도서관<sup>40)</sup>

선배어린이도서관은 독서교육연구회<sup>41)</sup>의 일원인 이선배에 의해 1998년 9월에 대전시 갈마동에 문을 열었고 현재는 대전시내에 있는 전민동으로 이전하여 2000년 3월 11일에 재개관하였다. 독서교육연구회는 어린이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취약하다고 보아 어린이도서관을 직접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이것을 이선배가 실행에 옮겨 지금의 선배어린이도서관이 만들어졌다. 이런 설립 배경을 가진 이 어린이도서관의 구체적인 운영 목표를 담당 사서에게 들어보자.

저희가 운영지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정도 되요. 첫 번째가 ‘좋은 책을 어린이 가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공공도서관이 어린이들이 가기에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정말로 마을마다 이런 조그만 마을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구요. 그리고 도서관이 가까이 생겨도 이제는 질을 따져야 되지 않나 해서 넘쳐나는 책들 중에서 정말로 좋은 책들을 가까이 두자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7차 교육과정 때문에 학교에서 토론식 수업을 하면서 자료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곳에 애들이 오면 숙제를 해결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되자는 것이 두 번째구요. 세 번째는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펼치자는 거예요. 독서동아리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동아리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에요. 동아리뿐만 아니라 독서기행이나 독서지도 강좌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지침으로 해서 모든 도서관 활동이 이루어져요.<sup>42)</sup>

이 말을 보면 도서관의 전체 운영 방향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활동들이 명확해져 있다. 이런 명확한 설립배경과 운영방향을 토대로 선배어린이도서관은 현재 4500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매달 50권 정도의 신간을 구입하고 있다. 그리고 책 두 권을 기증하면 평생 회원자격을 얻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통한 장서의 확충도 이루어지고 있다.

40)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390-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41) 서울교육대학 출신의 어린이독서교육에 관심이 있는 3명의 현장 교사와 선배어린이도서관의 설립자인 이선배로 구성된 모임이다. 홈페이지에는 이 모임의 취지와 구성원, 사업 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다.

독서교육연구회 홈페이지, [http://blue.nownuri.net/~sbook], 2000. 3. 17.

42) 대전 선배어린이도서관 배선영 사서와의 면담(2000. 3. 17).

선배어린이도서관의 운영은 설립자나 운영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서관의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도서관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심의의결권은 설립자인 이선배와 배선영 사서 그리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선배어린이도서관의 전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계획을 들어보자.

운영위원들은 앞으로 4월에 위촉할 계획인데 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가려고 해요. 그래서 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 구조는 대표로 이선배 선생님이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고, 도서관 운영의 실무자로 제가 있는 형태로 되어있어요. 여기서 운영위원회가 가장 큰 심의의결 기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이나 다른 활동에는 자원봉사나 명예 사서를 모집해서 구성을 하려고 해요.<sup>43)</sup>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을 열어두어 뜻 있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도서관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올바른 독서문화를 뿌리내리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선배어린이도서관의 프로그램으로는 저학년 대상의 '책이랑 놀자'라는 독후 활동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월 1회 독서퀴즈대회, 유아들에게 책 읽어주기, 슬라이드 및 비디오 상영,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에게 도서관 이용교육 실시, 독서기행, 동아리 운영 등의 어린이대상 프로그램과 학부모 교육강좌를 마련할 계획<sup>44)</sup>이다.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선배어린이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사업이 어린이들의 동아리 활동지원이다. 이 동아리 운영은 도서관에서 모든 형식과 내용을 마련해서 어린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은 장소 제공을 비롯한 어린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뿐이다. 이런 면에서 선배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이 독서자료를 제공하는 기관만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흥미를 개발하고 이를 신장시켜주는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생각된다.

선배어린이도서관을 움직이는 핵심인물은 도서관의 설립자인 이선배와 배선영 사서이다. 이선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설립 취지와 활동 방향을 가지고 '체대로'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자 이 도서관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관심을 끄는 부분이 고용된 사서가 도서관 운영의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설 어린이도서관은 열의가 있는 설립자가 홀로 운영을 전담하고 있고 간혹 실무자가 있더라도 자원봉사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선배어린이도서관의 실무 운영은 사서가 하고 있다.

43) 대전 선배어린이도서관 배선영 사서와의 면담 (2000. 3. 17).

44) 연구자가 선배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할 당시인 2000년 3월 17일에는 각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고 도서관의 내부 회의를 통해 시행이 결정된 상태였다.

현재 선배어린이도서관의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배선영 사서는 개관준비에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독서교육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있어 사실상 어린이 독서교육에 관한 전문 사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확보는 이 도서관이 제대로 된 어린이도서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 못지 않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용자들을 맞고 있다.

### (3) 어린이도서관 ‘들꽃이야기’<sup>45)</sup>

어린이도서관 ‘들꽃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글쓰기 교육을 위한 다양한 경험의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1995년에 개관하였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도서관은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경험세계를 넓히고 사고력과 창조력, 표현력을 가진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설립 목적과 취지는 이 어린이도서관의 활동이 현장체험을 중시하면서 이것을 책읽기와 글쓰기로 연결해 낸다는 점에서 이 도서관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진 운영방식을 만들어내게 된다.

현재 약 2500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책의 선정과정에 아이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자녀교육과 관련한 어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구입된 책은 어머니 손을 잡고 도서관에 들어선 아이들에게 읽혀지거나 도서관에서의 각종 활동에 활용되기도 한다. 어린이들의 책읽기를 격려하고 권장하는 일차적인 역할을 가정의 어머니들이 맡고 있으며 이것은 올바른 자녀교육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교육을 고려한 자료수집은 이 도서관이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자녀 독서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한 상담 역할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

현재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 독서교실이나 슬라이드·비디오 상영, 학부모 강연 등은 다른 어린이도서관의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어린이들에게 현장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문화행사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2) 인표어린이도서관

인표어린이도서관은 기업의 지원으로 문화적·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변두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통한 지적인 욕구의 충족과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인표어린이도서관은 서울에 에스콰이어 사회과학재단 산하에 인표어린이도서관 본부를 두고 국내외 각 지역에 22개의 분관<sup>46)</sup>을 두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제공하

45) 부산시 남구 대연5동 1364-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46) 인표어린이도서관은 1990년 서울 상계인표어린이도서관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각지에 14곳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 8곳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 설립된 대부분의 분관은 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진도와 전주의 경우에는 각각 초등학교와 시립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다.



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각 분관은 인표어린이도서관 본부에서 구입 또는 구독하여 배포한 신간 도서와 잡지<sup>47)</sup> 등을 비치해 두고 있으며 장서의 규모는 6000여권 정도이다. 인표어린이도서관의 신간 공급은 1년에 2회 정도로 나누어져 본부로부터 각 분관으로 제공되고 있다. 자료수집에서 보이는 본부와 분관의 역할 분담은 도서관의 전체 운영에서 나타난다.

인표어린이도서관 운영방식은 본부와 분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하나의 본부 아래로 동일한 모델의 22개 분관이 상호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 인표어린이도서관 본부는 신간을 직접 구입하고 분류하는 일을 비롯하여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보급, 소식지<sup>48)</sup> 발간, 분관 담당자를 위한 강연회와 워크샵 개최, 분관의 행사 지원 및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분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표어린이도서관 분관에서는 이용자 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이용지도와 각종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인표어린이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개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독서카드 기록, 독서상담, 독서노트 기록 등이 있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는 독서클럽 운영, 방학중의 독서교실 등이 있다. 이외에 행사형 프로그램으로 '책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독서감상문 쓰기', '후속편쓰기', '내가 되고 싶은 인물 표현하기', '책사랑잔치', '동화구연대회', '독서퀴즈대회', '책광대회', '독서감상화그리기', '독서포스터 그리기' 등이 있다. 이러한 인표어린이도서관 본부와 분관의 역할분담과 교류는 이용자 봉사를 더욱 전문화시키면서 유사한 업무 환경에서의 정보교환을 통해 업무상의 편리함과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내외에 설치된 인표어린이도서관의 설치 기준은 30평~60평 정도의 공간을 각 분관을 설치하려는 기관에서 마련하면 인표어린이도서관 본부에서는 어린이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진다. 이런 역할분담은 인표어린이도서관의 외형을 어린이도서관 다운 면모로 만들어주고 있으나 직접 분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자질이나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일괄 통제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표어린이도서관에서는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분관의 담당자를 위한 재교육이 봄과 가을에 걸쳐 강연회와 워크샵을 우녕하고 있다. 이 강연회와 워크샵은 어린이 독서교육에 대한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내용은 동화작가나 도서관계 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문적인 강의와 각 분관의 사례를 발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7) 2000년 4월 현재 구독중인 잡지로는 새벗, 지오, 초등교육, 생각쟁이, 과학소년 등이 있다.

48) 인표어린이도서관 본부에서는 연4회 「인어나라」 라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 책자는 본부와 각 분관의 활동, 신간 보급 현황, 분관 어린이 및 담당자들의 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 (사)어린이도서연구회

### 1) 결성 배경 및 목적

어린이도서연구회는 1970년 말에 결성된 서울양서협동조합의 어린이 도서분과가 1980년 5월 제1회 어린이 책(국내 창작동화)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어린이도서연구회로 발족하였다. 이후 어린이도서연구회는 '겨레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이라는 목표 아래 어린이 책을 매개로 한 어린이 출판문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 2) 활동

#### (1) 권장도서목록 작성 및 배포

어린이도서연구회는 매달 발간하는 회지를 통해 권장도서목록은 배포할 뿐 아니라 매년 연도별로 그림책을 비롯하여 청소년 책에 이르기까지 각 학년별로 약 100권 정도의 책이 포함된 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회지와 연도별 권장도서목록에 수록되는 것 외에 계절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 시기별로 적절한 주제에 따른 책을 선정하여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좋은 책을 알려내고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배포하는 권장도서목록은 어린이책의 소비자인 학부모나 도서관의 사서, 학교의 교사에게 하나의 선택기준이 될 뿐 아니라 좋은 어린이책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 (2) 지역사회에서의 어린이 독서운동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지역 조직으로 '동화읽는 어른'이라는 모임이 있다. 이들은 1993년부터 서울의 상계, 광명, 시흥, 부천, 고덕 등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여 1999년 1월 현재 일산, 부산, 대전, 강릉, 광주, 제주 등 전국 52개 지역에서 약 900여명의 회원<sup>49)</sup>이 각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sup>50)</sup> '동화읽는 어른'은 지역을 중심으로 책을 통해 건전한 어린이 문화를 개척하는 운동조직으로 회원의 대부분이 주부로 구성되어 있다.

'동화읽는 어른'이 전국 각지에서 펼치는 활동은 책과 관련한 어린이 문화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벌이고 있는 활동은 각종 강연회 개최, 그림책 원화전시회, 인형극이나 노래극 상연, 좋은 책 바꿔주기, 전통놀이 마당, 슬라이드 상영, 그림책 만들기, 좋은 책 전시, 좋은

49) 이들은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준회원에 해당하며 15명 이상의 뜻있는 성인이 모여 서울의 본회에 등록을 하면 준회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50) 유성희, 「출판문화 운동과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역할」, 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ibooknet.or.kr/special4.htm>], 2000. 4. 25.

책 보내기 등이다. 이런 활동에는 이들이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어린이 책과 아동문학, 독서 교육 등의 관련된 책을 읽고 함께 공부하면서 토론하는 과정과 성과가 녹아들어 있다.

‘동화읽는 어른’의 활동 중에서 특히 공공도서관에서의 활동 사례는 서울의 목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1998년 여름 독서교실’에 오전수업을 맡는 것을 비롯하여 대전, 광주, 천안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목동도서관의 경우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도서관과 인연을 맺어 어린이 독서지도<sup>51)</sup>와 권장도서와 신간목록 배포 등의 활동을 하다 여름 독서교실을 맡게 되었다.<sup>52)</sup> 이외에 대전의 ‘동화읽는 어른’은 유성도서관에서 매년 ‘학부모독서강좌’와 ‘어린이와 함께 하는 가을 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2000년 겨울 독서교실’에는 직접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대전시내의 다른 도서관에서도 요청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sup>53)</sup> 이것은 도서관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게되고 지역의 ‘동화읽는 어른’은 활동의 무대를 마련하게 되는 장점<sup>54)</sup>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계 활동 외에 직접 지역의 도서관에 찾아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 (3) 어린이 책 사랑방 운영

어린이 책 사랑방의 외형은 작은 어린이 문고 또는 도서관과 유사해 보이지만 내용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책을 읽고, 빌려가고,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머니 모임을 만들어 낸다거나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간단한 문화행사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어린이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린이 책 사랑방은 정해진 모델은 없지만 대부분 어린이도서연구회의 활동에 동참하는 개인의 의지로 가정집이나 서점의 한 귀퉁이를 열어 시작한다.

각 지역의 책 사랑방마다 운영방식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이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화읽는 어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곳에 책을 보러 또는 빌리러 오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어내고 이 강좌를 시작으로 자체적인 모임을 꾸리게 되어 또 하나의 운동조직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운동의 확산을 통해 어린이도서연구회 운동 이념이 더욱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실 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 (4) 어린이 책 유통의 활성화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운동의 한 방향이 어린이 책의 올바른 유통이다. 이

51) 1998년 3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어린이 독서지도를 시작하였다.

52) 김혜원,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 - 98년 목동도서관 여름독서교실을 마치고」, 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ibooknet.or.kr/lib03.html>], 2000. 4. 22.

53) 대전지역의 ‘동화읽는 어른’ 대표 이광원과의 면담 (2000. 3. 17).

54) 대전 안산도서관 김원규 관장(전 유성도서관 관장)과 대전 동화읽는 어른 회원들과의 면담 (2000. 3. 17).

것은 좋은 책을 지역의 독자들에게 원활히 제공하고 어린이 책의 출판과 관련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서점과는 다른 형식의 서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어린이 전문서점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되는 어린이 책 전문서점은 1990년 문을 연 신촌의 '초방'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82곳<sup>55)</sup>에 이른다.

어린이 책 전문서점은 책을 사고 파는 상거래만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다. 여기서는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아울러 독서 상담의 역할까지 하고 있어 이것 또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전문운동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 책과 관련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이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의식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 V. 결론 :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발전전략

### 1. 어린이 독서교육의 범위 확대

올바른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독서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이 속에서 참여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범위에 대한 협소한 인식은 독서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서의 질적인 면과 교육대상의 측면에서 문제를 나타내었다.

첫째로 장서의 질을 결정하는 선정과정을 살펴보자.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책 선정은 장서의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증가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자료 선정의 주체가 되는 사서가 좋은 책에 대한 기준과 좋은 책을 선정하겠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장서구성상 부족한 주제 분야의 책, 현장수서를 통해 선정도서목록에 포함된 책, 신문이나 신간목록에 제시된 책을 선정 기준으로 하는 수동적인 자료 선정으로 이어진다. 이 수동적인 선정과정은 어린이 독서교육의 범위를 독서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인식하여 프로그램의 바탕이 되는 자료수집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한 결과이다.

반면, 사실 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장서로 책을 들여놓기 전에 운영자가 직접 책을

55) 어린이 책 전문서점의 현황은 1999년 9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wibooknet.or.kr/lib.htm], 2000. 4. 21.

읽고 평가를 거쳐 운영자의 어린이 독서교육에 대한 관점과 철학이 장서의 질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운영은 어린이 독서교육에 대한 범위를 넓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도서관에서도 운영자가 명확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직접 선정할 뿐 아니라 수집된 장서의 내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장서의 양적인 확충보다는 질적인 면에 가치를 두고 있어 양질의 장서 확보가 가장 독서교육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독서교육 대상에 대한 한정된 인식의 문제이다. 어린이 독서교육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즉, 가치관, 문화, 정치적 배경, 교육이념 등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교육대상에 반영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주요 대상은 초등학교 어린이이며 어린이 독서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나 가정, 사회를 대상으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식하는데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이와 비교해서 민간의 어린이도서관이 거의 필수적으로 학부모 모임이나 강연회, 상담을 주요 활동으로 정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독서교육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 대상의 강연회나 학부모 모임을 구성하여 독서교육의 대상을 사회로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어린이 독서교육의 대상이 어린이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둘러싼 제반 환경까지를 포괄적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연구회는 어린이 독서교육의 대상을 사회의 문화적 환경, 정치적 환경, 교육적 환경으로 확대하여 보고 있으며 이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도서관의 사서, 학교의 교사를 핵심 운동주체이자 교육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대상에 대한 확장된 인식은 독서교육이 한정된 시간과 공간, 자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과 상호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 전문성의 확보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민간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활동의 질적인 발전은 어린이 독서교육의 주체가 가지는 전문성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만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을 살펴보면 어린이 전문사서의 배출과 활동이 지원되지 않는 현실에서 전문성 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서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의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과 교육의 내용이 실제적인 방법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어린이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을 공공도서관 밖의 활동 주체들이 가지는 전문성의 정도와 확보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수립해 보았다.

첫 번째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내용적인 면에서 어린이 독서교육의 정의와 가치, 중요성 등을 담아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1회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나누어 수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는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교육이 가지는 지역적인 한계 또는 개별 도서관에 따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사서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이것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각 도서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장의 인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방안이라고 본다. 이것은 어린이도서관연구회의 지역모임처럼 상시적인 연구모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수직적인 교육이 담지 못하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주제와 내용을 담아내면서 개별 도서관의 활동을 자극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재교육을 장려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학 부설의 사회교육원이나 대학원의 관련 학문 분야로 진학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네 번째 방안은 외부의 어린이 독서교육 관련 전문 인력이나 단체와 연계하는 것이다. 담당 사서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 되어야겠으나 외부의 전문 단체나 모임과의 연계를 통해 내용을 보강하면서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방안은 다소 기계적인 결합이 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현장의 사서들은 관련 분야로 견문을 넓힐 수 있으며 재교육이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고도 다양한 독서교육 사례와 접근 방법을 접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통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3. 프로그램의 다양화

어린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지속적인 독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취지는 직접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과 접근방식으로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지도록 돕는 것이다.

양적인 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민간의 프로그램에 비해 부족하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3가지 정도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1일 독서교실」은 독서보다는 도서관 이용교육의 성격이 강하며 「어린이독서회」는 각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그리고 「독서교실」은 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이다. 이것들은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외에 이야기교실이나 독서퀴즈대회, 글짓기대회 등은 각 공공도서관에 따라 덧붙여지기도 한다. 여기에

민간의 어린이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자면 먼저 프로그램의 양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민간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은 물론이고 이외에도 현장 체험, 비디오나 슬라이드 상영, 전통놀이 체험, 동극이나 인형극 상연, 책 읽어주기, 독서기행, 각종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하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항상 재미있는 '사건'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획일적이다. 이것은 새로운 내용, 지역적 특성이나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이용자 봉사의 성격을 가지기보다는 정형화된 행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영역의 프로그램은 개별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취지나 목적과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 영역의 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도서관에 항상 존재하는 문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속에서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려가는 공간만이 아닌 문화공간이 된다. 어린이 독서교육이 책이나 가끔 있는 행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을 둘러싼 제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중요하다고 볼 때 현재의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질적인 면 즉, 내용에서 부족함이 많다.

마지막으로 참가 대상을 중심으로 현재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주요 참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어린이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간혹 공공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유아대상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형태는 아니다. 이에 반해 민간의 어린이 독서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대상을 폭넓게 인식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학년 또는 연령별로 참가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부모 대상의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 독서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이 참가자에게 일회적인 행사 또는 흥미로운 경험으로 그쳐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일상적인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으로 연결시켜 어린이 독서교육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은 인원과 규모, 짧은 시간이지만 지속적이며 각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어린이 독서교육을 위한 사회적 역할 개발과 확대

책이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 정치적 이념과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독서는 그 사회와의 간접적인 의사소통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독서교육은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도서관 밖의 사회현실로 시야를 넓히면서 그 속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민간 영역의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을 찾아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어린이 독서교육을 알려내고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학부모 모임 같은 독서 운동조직을 만들어 그들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운동의 내용으로 책 읽기와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육제도를 바로잡고 건전한 어린이 문화를 만드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독서경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표어린이도서관은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연구회는 매월 권장도서목록을 발간하여 일반인들이 어린이 책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좋은 책을 알려내고 이것의 유통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사회 전체의 독서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 사회에서 '동화읽는 어른'의 활동과 어린이 책 사랑방의 운영, 어린이 책 전문서점의 설치를 확산시키면서 사회의 건전한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 전체의 어린이 독서교육 흐름 속에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인 활동과 역할은 정체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의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모습이 도서관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그곳의 이용자라는 한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의 부족은 사회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의 단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이용자가 외면하는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현실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인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사회적인 역할은 찾아오는 이용자에게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의 독서운동처럼 사회의 현실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권장도서목록을 만들어 좋은 책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와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독서문화를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에 동참하고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도서관 이용자 특히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독서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독서운동 단체나 교육운동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의 독서현실에 눈을 돌리고 여기서 얻어진 문제의식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활동 방향 수립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며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과 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대전 선배어린이도서관 배선영 사서와의 면담. 2000. 3. 17. 13시~14시 20분, 선배어린이도서관.
- 대전 안산도서관(전 유성도서관) 김원규 관장과 대전 '동화읽는 어른' 회원들과의 면담. 2000. 3. 17. 10시 30분~12시, 안산도서관 관장실.
- 사서 C와의 면담. 2000. 3. 27. 12시~13시 30분. H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
- 사서 J와의 면담. 2000. 3. 25. 9시 30분~11시. F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
- 사서 U와의 면담. 2000. 1. 15. 14시~15시, A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
- 사서 Y, P와의 면담. 2000. 4. 7. 9시 30분~10시 30분, K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
- 서울 파랑새어린이도서관 전영순과의 면담. 2000. 3. 17. 18시 30분~19시 30분, 파랑새어린이도서관.
- 수원 어린이 책사랑방 '해님달님' 최정숙과 수원 '동화읽는 어른' 심은정과의 면담. 2000. 3. 18. 15시~16시 30분, 어린이 책사랑방 '해님달님'.
- 국립중앙도서관. 『2000년도 교육훈련계획』, 1999.
- 김수경. 「어린이도서 선정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5.
- 도서관운동연구회. 「제8회 도서관 운동연구회 토론회 공공도서관의 아동 서비스 현황과 확충 방안」. 《도서관운동》 통권17호(1999. 12), 71-91쪽.
- 도서관운동연구회. 「제8회 도서관운동연구회 토론회 자료집 공공도서관의 아동서비스 현황과 확충방안」, 1999. 11. 13.
- 부산 어린이도서관 '들꽃어린이' 김숙과의 면담. 2000. 4. 8. 14시 30분~16시, 어린이도서관 '들꽃이야기'.
-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 현장 조사일지. 2000. 1. 15~1. 28.
- 부산광역시립 공공도서관. 『99 겨울 독서교실』. 부산광역시립공공도서관, 1999.
- 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읽는 어른모임 대표자 연수자료집 : 지역 어린이문화운동의 전망과 과제』. 1998.
-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자료집』, 1999.
- 유소영, 정은주.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도서관》 제55권 1호

(2000. 봄), 38-59쪽.

한윤옥. 『어린이 정보자료와 활용』. 아세아문화사, 1997.

「괴테 엄마' 안 부럽다」, 「필독도서 믿을 게 못되네」, 「몽실언니, 노마는 어디 있어요?」,  
「어린이 전문서점 구경하세요」. 《한겨레21》 제256호(1999. 5. 6), 44-52쪽.

「도서관과 교육」. 《초등우리교육》 (1998. 10). 41-71쪽.

「물 만난 물고기 - 엄마들의 학교 도서관 만들기」,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booknet.or.kr/lib04.html>] , 2000. 4. 22.

「어린이 독서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출판저널》 제235호(1998. 5. 5), 6-7쪽.

「어린이 전문서점 찾아보세요」. 《부산일보》, 2000. 2. 18.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좋은 책도 정의사회 밀거름”」, 「어린이 책 ‘무력무력’」. 《한겨레신문》, 2000. 1. 13.

「어린이 책도 입체화 고급화 바람」, 「국내 유일의 아동도서 전문 유통 ‘서당’」. 《출판저널》 제169호(1995. 5. 5), 14-18쪽.

「책읽기가 괴로워요」. 《한겨레 21》 제305호(2000. 4. 27), 74-75쪽.

「특집 어린이 문화와 책」, 「특집 우리나라의 어린이 책」. 《출판저널》 제257호(1999. 5. 5), 4-14쪽.

「학교 ‘밖’에서 봄 이루는 책읽기 교육」. 《출판저널》 제61호(1990. 5. 5), 6-7쪽.

유성희. 「출판문화운동과 어린이도서관연구회의 역할」,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ibooknet.or.kr/spercisl4.htm>] , 2000. 4. 22.

이주영. 「어린이책 유통구조의 현황과 개선 방향」,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ibooknet.or.kr/special1.html>) , 2000. 4. 22.

조월례. 「어린이도서관연구회와 어린이 책 출판의 흐름」,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ibooknet.or.kr/special.htm>) , 2000. 4. 22.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98년 목동 도서관 여름 독서교실을 마치고」,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ibooknet.or.kr/lib03.html>] , 2000. 4. 22.

「유성도서관의 활동 사례」,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ibooknet.or.kr/lib05.html>] , 2000. 4. 22.

「이제 그 작은 책이 보인다 -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세미나를 마치고」,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ibooknet.or.kr/lib01.html>] , 2000. 4. 22.